

성수기에도 소비는 위축

서울시에서 생계유통이 없어진지 4개월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3월부터 생계단축을 하겠다는 발표에 생계상인들이 생계판매진열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간 언젠가는 도계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집약되었지만, 현실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간이도계장 시효가 끝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던 도계유통이 별다른 큰 저항없이 시행된 것이 신기할 정도로 생계상인들이 협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다. 아울러 생계유통이 없어졌음에도 아직도 도계유통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도계유통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도계유통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적 존재이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도계장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본다.

첫째, 소비의 부진이다.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

식이 병계 혹은 상하거나 오래된 닭이 아닌가 하는 불안때문에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17개의 도계장에서 15만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침 7시까지 도계가 완료되어야 하니 자연 밤중에 도계를 하여야 하고, 짧은 시간에 일시에 몰리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본지 4월호 참조) 또 도계장 입장에선 야간에 작업을 해야 하니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처리하려니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품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방혈이 충분치 못해 슈퍼마켓에 진열된 닭고기 중에 핏물이 번갈게 흐르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한동안 닭고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상인 입장에서도 초저녁부터 도계순번을 기다리느라 줄을 서야 하고 감량 폐사의 위험부담도 늘어간다. 낮에 천천히 도계해 두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배달하면 되지 않느냐고 속편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상인들은 도계한지 몇시간 지난 것은 팔다 남은 재고품같이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도계장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하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배농을 수 없는 것이 소매상인들은 1,000수 소비가 가능해도 팔다 남으면 처리가 곤란해서 7~8백수만 판매하고 오후 늦게는 닭이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초기에는 판매예상 수수를 도계하였다가 오후가 되어 도계 후 5~6시간 지난 후 변하기 시작하면, 덩핑으로 처분해서 유통질서가 혼란해

지고 생산자에게 닭을 구매할 때 싸게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닭값하락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여름철에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덤핑판매하고 겨울에는 안팔려 재고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는 위축되고 값은 하락하게 된다.

지난 4개월 동안 도매상 10%, 소매상 15% 정도가 폐업한 것을 보아도 닭고기유통이 얼마나 힘들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생산농가에서 900원(kg당)을 받을 경우 도제하면 23~27%의 감량으로(털과 내장) 도제수수료 80원을 포함해서 kg당 1,205원이 된다. (900원 + $900 \times \frac{25}{100}$ 원 + 80원) 결국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상한가격 1,200원을 넘게되어 농장에서 900원 이상 닭값이 오르면 소비는 위축된다.

현재 ILT 등으로 브로일러 단지에서는 하이브로로 크게 기르지 못하고 세미로 출하하여 생산비의 차이가 있지만,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900원을 웃돌아 육계산업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진다.



다행히도 마스크를 통한 선전에 힘입어 삼계탕소비가 증가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나, 닭고기소비의 주종을 이루어야 할 가정소비의 위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2천여개의 소매상과 수집상을 합하여 3,500여명의 유통상인이 있는데, 지난 19일 유통업자 대표와 생산자대표들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아 브로일러산업의 앞날에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하겠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기장을 철저히 하고들 있어 생산성도 크게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은 정부의 육류소비구조개선 정책과도 일치하게 된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그치고 체념하며 시간이 해결하여 주기를 바란다면 육계산업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가격 안정이 발전의 기반

물가가 한자리숫자 상승에서 이제는 0자리 숫자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큰 건물이나 은행 앞에도 「인플레이와 함께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는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농수산물에 기여한 공로는 크며, 이는 미국의 농산물가격 하락에 힘입은 바 크다.

그동안 하락했던 계란값이 회복하자 물가당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계란처럼 물가안정에 기여한 품목이 없으며, 평균 물가상승을



·우리나라의 대부분 농산물이 그러하지만 닭고기와 계란도 계절적으로 소비가 편중되어 있어 가격의 진폭이 크고 연중 몇차례 가격이 폭락할 때를 기준으로 값이 회복되려 하면 저항을 받게 된다.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장치 없이는 항상 양측가는 고달플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가격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새로운 발전을 기할 수 없다.

브로일러의 계열화가 추진되고 있고 계란도 집란센터(GPC)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격의 안정없이 새로운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75.8, 에너지 420.0에 비해 179.4로 인상폭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란값이 조금만 상승하면 당국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양측가들은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때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수입자유화와 농수산 정책에 대한 농업경제학회 주최 심포지움에서도 최근 한자리숫자로 물가가 안정된 데에는 농수산물가격의 하락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에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농산물가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대하며, 그 한예로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당근의 비중은 극히 적음에도 대통령이 매일매일의 당근값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주부들이 매일 당근을 구입하기 때문이며, 값이 오르면 전체국민 여론화하기 때문에 가격안정에 대통령까지도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동차나 주택은 몇년에 한번 구입하므로 값이 올라도 소비자는 민감하지 못하지만 농수산물은 숙명적으로 주부들과 매일 맞닥치므로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브로일러 시설에 자금지원 필요

경기도 일원에서 간이제사 철거명령이 내려 축산업 중에도 양계업이, 양계업 중에도 브로일러쪽이 피해가 커 수급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축산물 장기수요예측을 보면 91년도에는 81년에 비해 약 3배의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요량을 모두 자급할 경우 현재의 3배에 달하는 제사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 일원에는 사실상 축사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국토관리법, 상수도보호지역,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린벨트, 녹지, 산림보호

지역 등 건축에 제한 요소가 많으며, 건축할 수 있는 곳도 축사를 현재의 3 배나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시설을 근대화하여 평당 사육수수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브로일러 생산농가들이 영세하여 자력으로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또 능력이 있어도 가격이 불안정하여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보장도 안될 뿐더러 수익률이 낮아 투자를 유도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브로일러산업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농협을 비롯한 각종 금융지원 제도가 잘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환경정비 리스협회(재단법인)같은 것이 있어 환경오염, 규모확대, 사료생산이용과 기계화 등 제반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임대하여 주고 있고, 이를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도 좋을 것이다.

국내에도 리스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높아 양계업자들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

능한 형편이다. 축산기금을 관리하는 축협중앙회에서 앞으로 리스업무 등을 취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무런 대책없는 간이계사철거령은 양계산물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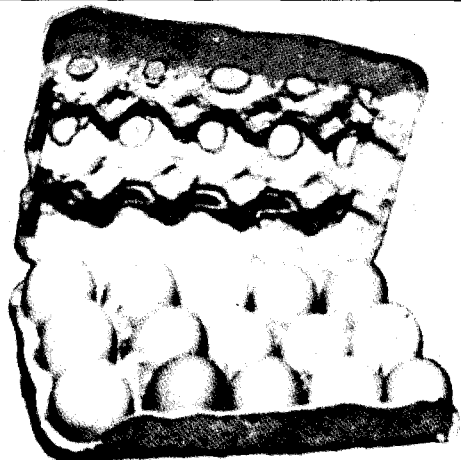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